

보도시점 2026. 10. 1.(목) 15:00 배포 2026. 10. 1.(목) 13:00

허장 제2차관, 뉴욕한인금융인협회 포럼에서 AI 시대 금융의 역할과 한·미 금융협력 강조

- KFS 주최 「2026년 한국 포럼」 축사, 장기투자과 생산적 자본배분 강조
- 한·미 협력을 위한 KFS의 가교역할 당부 및 자본·외환시장 개선 노력 설명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0.1.(목)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 KFS 포럼」에 참석하여 AI 시대의 금융의 역할과 한미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뉴욕한인금융인협회(Korea Finance Society)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월가 한인 금융인들과 국내 투자자들이 상호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AI·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수출·투자로 확산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반등을 넘어 중장기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AI 시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미래 산업의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해 자본을 더 생산적인 분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한미 경제 협력에서도 금융이 양국의 공동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미국의 AI 플랫폼, 소프트웨어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공동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KFS가 양국의 투자 기회와 기술·자본을 연결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허 차관은 정부의 자본·외환시장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였다. 올해 9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의 등록 체계를 마련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거래 기반을 갖춘데 이어, 해외 투자자가 현지 영업 시간대에 원화를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원화국제결제망을 정식 가동할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창선 (dje9350@korea.kr)